

## ‘한국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탈경계와 가족 커뮤니티’ 학술대회 개최 전통과 현대 아우르는 가족과 커뮤니티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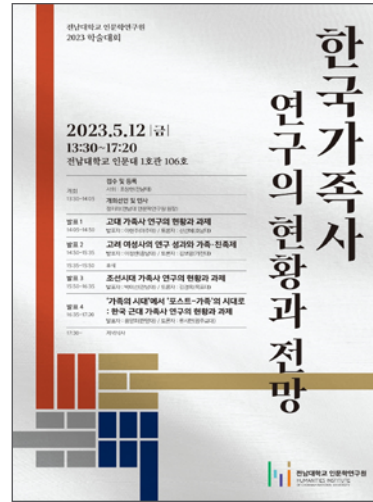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가족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의 국내학술대회는 5월 12일(금)에는 『한국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6월 16일(금)에는 탈경계와 가족커뮤니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5월에 개최된 학술대회는 고대 가족사, 고려시대 여성사, 조선시대 가족사, 근대 가족사에 이르기까지 가족사, 여성사 등 전통 시대 한국 가족에 대한 연구사를 시기별로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한국가족사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이어 6월에 개최된 학술대회는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의 2단계 3년차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마련되었는데, 제1세션은 <초국가화/이주>란 주제로 이지연 교수(이화여대)가 『아시아 북한 식당에서의 노동과 공연:북한과

견 여성 종업원과 남한 관객의 조우와 재현들』, 최대회 HK연구교수(인문학연구원)가 『귀환이민자의 이민 동기와 초국적 생애 전략』을 발표했고, 제2세션은 <인류세/근대비판>이란 주제로 노고운 교수(전남대)가 『기후위기와 다종적 연대:제주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이지선 교수(숙명여대)가 『신체와 천체의 경계 혹은 한계 사유:면역과 전지구 패러다임을 넘어서』를 발표했다. 마지막 제3세션은 <퀴어/크립/이중시간성>이란 주제로 한우리 HK교수(인문학연구원)가 『어둠을 겨안기:『소니의 블루스』에 나타난 퀴어한 시간 연구』라는 주제로, 김미연 교수(경희대)가 『『사피라와 노예소녀』의 장애, 노



화, 섹슈얼리티 연구』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개별 지정 토론을 통해 탈경계와 가족커뮤니티의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시도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 5월 26일 제26차 콜로키움 개최 「조선 후기 한문학에 드러난 ‘통속성’의 층위」 주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5월 26일(금) HK+가족커뮤니티인문학사업단의 제26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은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106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제26차 콜로키움은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한의승(HK교수)의 사회로 심경호 특훈명예교수(고려대 한문학과)를 모시고 「조선 후기 한문학에 드러난 ‘통속성’의 여러 층위」란 주제를 중심으로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심 교수는 “조선 후기에는 사계층의 분화와 더불어 중하층 백성들과 함께 ‘생활의 장’을 살아간 한사(寒士)들이 명세(鳴世)의 의도를 버리고 독자적인 문

학 세계를 추구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문자 활동에 자조하면서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가치를 확인해야 했다. 이들의 문학은 사대부 문학이나 유학자-문인의 관점에서 보면 통속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사들의 문학 세계는 문언어법을 지키면서도 생활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된 조선식 한문의 활용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그 특징을 문학 속에 도입했다”고 주장하였다. 심 교수의 강연 이후 청중과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통속성’이란 개념이 가진 함의의 범위 문제, 계급성을 둘러싼 한사와 여향문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정미라 교수(인문학연구원장)는 “제26차 콜로키움



은 조선 후기 한문학에서 전환과 분기의 계기로 주목되는 ‘통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일상적 생활 세계와 연계되는 문학적 변화 양상을 동시대 가족과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6차 콜로키움의 주제는 인문학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아젠다에 있어서 전통시대 문학과 문화를 통해 당대의 가족과 커뮤니티를 이해하는데 시각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콜로키움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 인문학연구원 '청소년 인문·문화' 거점기관 선정

## 류도향 교수,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3년 과제 선정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전라권역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수도권/강원/충청/전라/경상 등 전국 5개 권역을 지정하는데, 전라권역 거점기관으로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이 선정된 것이다.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은 방과후교실과 꿈드림센터와 같은 청소년 시설에 인문 강좌를 개설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증감과 인문학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정식 사업으로 출범했다. 선정된 기관은 매년 1억 7천만 원씩 3년간 총 5억 1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은 문학/역사/철학/문화예술/융합 등 5개 분야에 15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20여 명의 강사진도 갖췄다. 지역 방과후교실과 꿈드림센터 등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강사를 파견해 인문 강좌를 운영한다. 매년 14개 기관에서 192차시 이상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병인 교수(인문학연구원 부원장)는 "기존에는 주로 고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추가되면서 생애 전반에 걸친 인문학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인문학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들이 인문학을 통해 세상을 향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인문학연구원 류도향 교수(사진)가 「다성적 주체와 창조커뮤니티-도래하는 커뮤니티 모델의 인문적 원리 탐색」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3년 과제에 선정되었다.



이 연구는 AI와 디지털 기술 발달이 급속도로 앞당기고 있는 초기능-초연결-초융합 환경에서 다성적 주체들이 자발적이면서 관계지향적인 방식으로 창조하는 커뮤니티의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는 미래커뮤니티가 새롭게 출현하고 변이하고 생성하는 비본질적 토대를 '창조성'으로 보고, 신자유주의 및 생명정치권력의 통치성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경유해서 '창조의 인문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목표를 가진다.

무엇보다 창조커뮤니티 사례에 대한 질적조사와 철학방법론을 결합한 실질적인 융복합 연구방법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선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융복합 시도는 최근 현실적, 정책적 담론에서 새롭게 부상한 '창조커뮤니티' 개념의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자본과 행정의 논리로 환원되는 각종 커뮤니티 사업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인문사회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해당 연구는 3년간 6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시행 및 '집단지성' 포럼 개최

인문학연구원은 가족커뮤니티인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학내외 연대 활동을 다채롭게 시행하였다. 먼저 2023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을 6월 29일(목)~7월 20일(목) 오후 4시~6시에 인문대 1호관 313호 강의실에서 「새로운 유대와 연결을 모색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주제로 콜로кви움을 개최하였다. 본 사업은 가족구성권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총 4장에 걸쳐 김순남, 나기, 나영정 선생님을 모시고 본 주제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대학생,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과 '지역혁신과 돌봄사회'를 주제로 7월 11일(화) 오후 2시~6시에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집단지성'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본 연구원 류도향 교수가 「지역혁신과 돌봄사회」라는 주제로 기초강의를

하였으며, 세션1은 김경례 대표(광주여성가족재단)가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가사수당'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를, 세션2는 주호연 팀장(광주광역시 광주전략추진단)이 「시민참여 지역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수당'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돌봄사회 조성을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라운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은 인문학연구원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시의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여성가족재단,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지역혁신과 돌봄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의제로 펼쳐내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시도가 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연구원 학술동성

#### 논문개제

- ▶ **김경학**,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혼성적 정체성 요인 도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재외한인연구』 61호, 재외한인학회, 2023.05.31.
- ▶ **정미선**, 「차원을 증여하는 헤테로토플로지의 문학—조세희 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시간의 문제」, 『문예연구』 117호, 문예연구사, 2023.06.30.
- ▶ **조경순**, 「동일 성분 명사구 중출 현상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 『한국어학』 99권 1호, 한국어학회, 2023.05.31.
- ▶ **조경순**, 「'와/과' 명사구의 의미역과 참여자역 연구」, 『한국어 의미학』 80권 1호, 한국어의미학회, 2023.06.30.
- ▶ **한의승**, 「전통적 지식 서술과 근대적 기술 포착의 공존장—〈南洪量傳〉을 중심으로—」, 『漢文學報』 48호, 우리한학회, 2023.06.30.